

野 전열 재정비... 권노갑·박지원 구원등판 대비

문재인 박, “선당후사”... 선거 지원 수순

동교동계 오늘 DJ묘역 참배 후 최종결론

새정치민주연합이 6일 내부 분란을 봉합하고 4·29 재보선 총력 체제 구축을 위한 전열 재정비에 나섰다.

문재인 대표와 박지원 전 원내대표의 전날 만찬 회동을 계기로 보궐선거 지원 문제를 둘러싸고 불거진 동교동계와의 갈등을 해소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은 동교동계로 상징됐던 호남과 구 민주계의 지원을 통해 단일대오를 구축하고 정동영, 천정배 전 의원의 동반 출마로 더욱 복잡해진 보선을 승리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단결과 단합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표는 회의에서 “이번 재보선에서 우리가 맞설 대상은 상대 후보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며 “우리 당이 더 단합하고 더 새로워진다면 승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내부 결속을 강조했다.

주승용 최고위원은 동교동계와의 갈등 사태에 대해 “내부의 안이한 생각과 상대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며 “앞으로 존중과 배려의 마음을 더 적극 전했으면 한다”고 겸허한 자세를 보였다.

새정치연합은 ‘민주당 6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에 권노갑 김원기 임재정 정대철 이부영 김옥두 이훈평 전 의원 등 동교동계에 뿌리를 둔 원로그룹을 멤버로 대거 위촉, 화해와 단결의 무드를 이어갔다.

동교동계도 본격적인 지원 수순에 들어간 모양새이다.

동교동계는 이희호 여사와 함께 국립현충원의 김대중(DJ)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는 ‘화요모임’이 있는 7일 집결, 보선 지원 문제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좌장인 권 고문은 이 자리에서 선거 지원 입장을 재확인 하면서 일부 반대 기류에 대한 교통정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전날 밤 문 대표와의 회동 이후 권노갑 고문, 박양수 의원 등과 만나 재보선 지원 원칙에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원내대표는 6일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 모든 것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어제 문 대표와의 회동에서 많은 얘기를 나눴으며 오해도 상당 부분 풀렸다”며 “7일 동교동계 회동에서 그동안의 불편함이 정리될 것이며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당을 살리고 국민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동교동계가 7일 내부 조율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보선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더 이상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명분도 충분치 않는데다 만약 보선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책임론에 휩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사태가 봉합된 배경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인 이희호 여사가 ‘숨은 역할’을 했다는 후문이다. 이 여사는 동교동계 인사들이 권 고문의 선거 지원을 반대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지난 3일 동교동계 인사들을 불러 모아 “당을 깨면 안 되고 단결해서 하나로 가야 한다”, “당 후보들이 이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선당후사’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동교동계가 문 대표를 정점으로 하는 당내 진노세력에 갖는 반감과 불신이 워낙 뿌리 깊다는 점에서 기대 만큼의 지원에 나설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새누리, ‘하트스토밍’... 맞춤형 공약 제시

새정치, ‘정책엑스포’... 시민과 정책 대화

여야, 재·보선 앞두고 ‘정책이벤트’ 맞대결

여야가 4·29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정책 이벤트 맞대결을 벌였다.

◇새누리당=당 정책위원회는 6일 경기도 김포시의 아라마리나컨벤션에서 ‘국민을 감동시켜라!’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열고 4·29 재보궐 선거와 내년 총선을 겨냥, 중산층과 서민이 공감하는 민생정책 개발에 본격 나섰다.

이번 워크숍의 화두는 지역 상생과 중산층 살리기 두 가지다.

모종민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수도권과 지방, 공존 해법’을 주제로, 이영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위기의 중산층,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각각 특강을 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선거 때마다 제기되는 수도권과 지방의 문제에 있어서 갈등이 아니라 공존과 상생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울 것”이라며 “중산층이 두터워야 건강한 사회, 안정적인 국가를 구현할 수 있어 중산층의 위기를 극복할 처방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특강에 이어 열리는 토론회는 ‘브레인 스토밍’을 본떠 ‘냉정한 머리와 따뜻한 가슴’이라는 의미를 담은 ‘하트스토밍(heart+brainstorming)’으로 이름을 달았다.

상임위법 현안을 중심으로 국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공약’을 제시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개진하는 자리였

다. ◇새정치민주연합=6일부터 사흘간 한국 정당 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2015 다함께 정책엑스포’를 열고, 시민들과 정책을 주제로 한 허심탄회한 대화에 나섰다.

이날 오전 10시 테이퍼 커팅식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 이번 엑스포에서 130명의 소속 의원들은 평소의 딱딱한 정장을 벗어 던지고 흰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으로 참석해, 오랜만에 격식을 내려놓고 편안한 모습으로 국회 주변 벚꽃 구경을 나온 시민들과 어울렸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대표를 필두로 김진표 정책엑스포 조직위원장, 우윤근 원내대표, 문화상·김한길·박지선·박지원·안철수 의원 등 당내 주요 인사 대거 출동해 모처럼 단합된 모습을 과시했다.

이 밖에도 의원들은 사흘간 30여차례에 걸쳐 열리는 정책토론회에 참석하거나, 각자가 담당할 부스에서 시민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는 등 적극적이로 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매번 정부·여당에 날선 비판을 내놓으며 정쟁을 벌이던 이미지를 털어내고 적극적으로 정책 대안을 내놓는 모습을 부각시키겠다는 것이 새정치연합의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오해 풀렸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오른쪽)와 안철수 의원이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기구 출범식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왼쪽은 박지원 의원. /연합뉴스

문재인 “국회의원 정수 400명은 돼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6일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부족하다”며 “400명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당과 야당 일각에서 반발이 나오는 등 정치권에 논란이 일고 있다.

문 대표는 이날 당이 국회에서 개최한 정책엑스포에 참여, 적정 국회의원 숫자를 ‘스티커 붙이기’ 형태로 설명하는 부스에 둘러 ‘351명 이상’이라는 의견에 스티커를 붙인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문 대표는 “국민에게는 그렇게 인식되지 않고 있지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인구 대비 의원 비율이) 낮다”며 “국회의원 수를 늘리면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표는 또 “(의원정수를 늘려야) 직능전문가를 비례대표로 모시거나 여성 30% (비례대표 보장)도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정개특위에서 논

의할 문제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는 것 같아 유감”이라며 반발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대다수 국민은 의원 정수는 그대로 두고 의정활동을 더 열심히 하기를 바랄 것”이라며 “왜 100명이나 늘려야 하는지 명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막연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내에서도 이견이 나왔다.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

서 열린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표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지금은 우선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관심을 가질 때”라고 말했다.

이처럼 파문이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자 문 대표는 오후 들어 “오늘 발언은 포포먼스에 참여해 가볍게 (얘기)한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김성수 대변인 역시 “문 대표의 평소 생각인 것은 맞지만, 당론을 정한 것도 아니고 깊이 있게 논의한 바도 없다”면서 “과도한 의미를 부여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야, 4월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

광주·전남 이정현·임내현·권은희 나선다

여야는 6일 4월 임시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에 나설 질문자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오는 13~16일까지 나흘 동안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등 4개 분야로 나눠 열리며 모두 24명이 나설 예정이다.

광주·전남지역 의원으로는 이정현·임내현·권은희 의원 등이 나선다.

특히 자원외교 국정조사, 공무원연금 개혁, 세월호 1주기, 방위산업 비리, 노동 문제 등 4월 임시국회에 주요 쟁점을 총망라해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다음은 대정부질문 의원 명단(여야 질문 순서 기준)

▲정치(13일)=김성태·권성동·박민식·이노근·김희국·민병주(이상 새누리

당), 신기남·홍영표·이인영·정청래·박완주(새정치민주연합), 비교섭 1명

▲외교·통일·안보(14일)=김을동·이정현·한기호·이철우·김성찬·김용남(이상 새누리당), 최규성·박수현·백근기·임내현·권은희·안규백(이상 새정치민주연합)

▲경제(15일)=김태환·유재중·배덕광·전하진·심학봉·강석훈(이상 새누리당), 이미경·김영주·정성호·박광운·박병계·홍익표(이상 새정치민주연합)

▲교육·사회·문화(16일)=한선교·안효대·박인숙·박덕흠·염동열·김명연(이상 새누리당), 유기홍·유대운·최동익·도홍환·최민희(이상 새정치민주연합), 비교섭 1명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경매투자

▶특수비법 배우실 분
교육비 / 임차활동비
사무실 사용료(1년) 등
2200만원

▶단독 / 공동투자 하실 분
자본금 - 1억원 이상
수익률 - 연 20% 이상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

화순 “전원주택지” 매매

- 화순군(읍) 다지리 산 12-7번지
- 임야 328평 ■ 33필지중 1필지
- 광덕교차로에서 5분거리
- 기반시설 조성중(화순군청) 2015년 5월 완공 예정
- 투자가치 좋음
- 매매가 - 1억 3120만원 (평당 40만원)

주인직매 H. 010-3605-5000

- 광주 월산동 110-18번지
- 5층 중 2층 34평
- 정남향, 2013년 신축
- 방 3, 화장실 2, 거실
- 내부 깨끗, 첫 입주, 즉시 입주가능
- 신우 APT 105동 옆
- 감정/시세 - 1억 9000만원
- 매매 - 1억 6400만원 (대출 1억 1천만원 포함)

월산동 “광전파크” 빌라

주인직매 H. 010-3605-5000